

濟州六大陰宅明穴地の 景觀解釋과 메타言語에 대한 試論

송 성 대*

〈차 례〉

1. 서론
2. 명혈지의 분포와 경관해석
3. 명혈지에 대한 논산(論山)과 경관의 상징언어
4. 결론

1. 서론

1) 연구목적

풍수지리는 2000년 이상 한민족을 비롯해 중국, 일본 그 밖의 동남아시아인들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묘지뿐만 아니라 집과 집터, 마을·도읍터, 서원과 향교 및 사찰, 정자, 그리고 마을 앞의 돌탑이나 당산나무, 동수(洞竅), 장승, 논두렁에 서 있는 남근석 하나하나까지도 풍수지리적 사고에 의해 세워지고 배치된 것이다. 따라서 풍수지리에 대한 이해없이는 소중화(小中華)라 불리는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¹⁾

풍수지리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 건축학, 조경학,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국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교수

1) 김두규(1998), 『우리땅, 우리 풍수』, 동학사, p.8.

문학, 심리학, 철학, 미술학 등 인문·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분야에서까지 행해져 왔다. '풍수지리'라는 명제에서 보듯이 사실 이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인 지리학이 주관심 분야가 됨에 마땅하다.

제주의 풍수지리에 관한 학적 연구로는 풍수설화를 분석한 윤치부의 "제주설화에 나타난 풍수사상"과 풍수도에 관한 진성기의 논문 단 두 편이 있으며²⁾, 그 외에 자료집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제주일보> 김범훈 기자가 공을 들여 1991년 2월에서부터 1996년 10월까지 장장 6년간 135회에 걸쳐 "地脈-濟州의 風水地理"란 이름으로 연재된 이야기 중심의 풍수 기획물과 우당신계생 선생이 소지했던 1차 자료들을 가감함이 없이 그대로 모아 펴낸 유고집이 있을 정도이다.³⁾

한국에 있어서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풍수지리의 본질을 찾아 제시하는데에 상당한 노력은 기울였다고 보지만 아직껏 그 내용은 전통적 사상에 젖어있는 지관들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주장이나 이념을 빌려 자신의 주장을 체계화하려는 데에 머물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특기할만한 것은 아니러니컬하게도 그런 지관에게서 거의 모든 지식을 얻고 또 상당한 주장을 그들과 은연 중에 함께 하면서도 풍수사와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여러 학문분야에서 한국의 풍수지리 연구가 일어난 것을 복고풍조(ethnic boom)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풍수사상에 그 전승, 계발가치가 높은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⁴⁾. 그러나 전승, 계발 가치보다는 전통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더 작용한 위에 다른 한편으로는 풍수지리사상이 아무런 가치없는 미신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⁵⁾, 아니면 토지이용상

-
- 2) 尹致富(1989), "濟州 說話에 나타난 風水思想," 『德齋申瑑俊博士 華甲紀念論叢』, 德齋申瑑俊博士還曆紀念會, pp. 103~123.
 秦聖麒(1980), "濟州島民과 風水地理—새로 發見된 「瀛洲影圖草」를 중심으로," 『韓國文化人類學』, 韓國文化人類學會, pp. 166~169.
- 3) 申相俊 編刊(1997), 『愚堂 申癸生 堪輿遺錄』, 韓國福祉行政研究所.
- 4) 李夢日(1991), 『韓國風水思想史』, 明寶文化社, p. 9.
- 5) 李鍾恒(1962), "風水地理說의 盛行의 原因관 그것이 우리 民族性에 미친 惡影響에 關한 一考," 慶北大學校 論文集 第五輯, p.503. 柳正基(1975), 『東洋思想事典』, 弘道全書論著類 第一篇, 大韓公報社, p.413.

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 또한 만만치 않다. 이는 결국 풍수지리가 과학인가 미신인가하는 양극단의 주의주장으로 흐른 감이 없지 않았다. 결국 풍수지리가 조선조 동안 끊임없이 산송(山訟)을 일으켜 파쟁에 의한 예송(禮訟)과 함께 한국의 2대 망국병이므로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폐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것은 다 좋은 것이니 전통을 무조건 고수하자는 국수주의적 연구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어느 쪽도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좁게는 제주인, 넓게는 한국인의 '전통풍수'가 한국인의 '전통축보'와 함께 국토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형성된 한국인 정신문화의 양대 축이라는 전제 하에 그 발생론적 해명과 시대적 의의를 가리고 나아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려는 시도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보다 적절히 표현하면 요즘 회자되는 '전통을 죽여야 전통이 산다'는 역설적인 주장에 동의하면서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제주도와 한반도의 풍수지리의 차이점을 가려도 볼 것이다.

전통풍수에 대한 학문적 연구라 할지라도 다분히 경관에 대한 관조 아니면 주로 관상술 내지 도참적 해석을 은연 중에 대중들에게 주지시켜온 것을 반성하고 여기서는 풍수경관을 관조의 대상은 물론 특히 인식의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오히려 전통풍수의 본질을 뒤섞임없이 분명하게 제시하여 한국인의 시대정신 정립과 새로운 장묘문화 창조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통풍수지리학에서의 경관 해설가와 풍수 소피스트들의 주관적 경관해설과 주술적 도참암시가 과학적 지리학과를 차별화시켜왔다.

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은 우연적인 것을 붙잡는 경관해설의 예술이나 도참암시의 점복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연성을 찾아 노력하는 과학이다. 사상의 본질과 토대를 찾아 헤매는 지리학자는 역건의 아집에 몰두하거나 주관적 경향의 거장인 동시에 달인인 경관해설가도 풍수소피스트도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본 연구를 장차 <한국의 장묘문화경관>에 관한 저서를 내기 위한 전 단계의 시론(試論)으로 삼게 되었다.

2) 연구 패러다임

환해의 제주도는 한국에서 풍수적인 면에서 그다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직업풍수사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명사(名師)의 답산록(踏山錄)에 실린 제주도 한라산의 풍수적 의미는 가장 으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명사들이 선정한 조선의 <一等九大穴>의 첫 번째가 한라산이다. 그 순서를 보면 ① 漢拏山頂穴, ② 光陽白雲山頂穴, ③ 智異山頂穴梅花落地形, ④ 般若峯頂穴, ⑤ 德裕山正穴, ⑥ 鷄籠山頂穴, ⑦ 太白山頂穴飛鳥形, ⑧ 妙香山林馬, ⑨ 九月山頂穴을 들고 있다.⁶⁾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명성을 가진 제주도지방에서 옛부터 지관들에 의해 내려오는 명당진혈지(lucky place)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제주도의 지관들은 제주도의 음택 명당진혈지로 10대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6대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 10대 명혈지로는 제1 사라(紗羅), 제2 개미(蟻頂), 제3 영실(靈室), 제4 한 대(애월읍 한대봉), 제5 반내, 제6 반대기, 제7 군산(軍山), 제8 하논, 제9 산방(山房), 제10 병악(並岳)을 든다. 그리고 6대 명혈지로는 제1 사라(紗羅), 제2 개미(蟻頂), 제3 영실(靈室), 제4 돌트명(亥頭明), 제5 반대기왓(盤得田), 제6 반내왓(半花田, 蟠花田)이 있다. 양자간에 있어서 3순위까지는 같으나 10대 명혈지에 6대 명혈지에 들어 있지 않은 한 대가 들어가 있고 6대 명혈지에는 10대 명혈지에 들어 있지 않은 돌트명이 들어 있다. 설에 의하면 중국 복주인으로 조선 중종(中宗) 임금에 사환(仕宦)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호종단(胡宗旦)이 제주섬에 왕기(王氣)를 찾기 위해 와서 보니 대혈(大穴)이 여덟이요, 소혈(小穴)이 서른여섯이나 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6대 명혈지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명혈지에 대해서는 가문마다, 혹은 지관마다 자신들과 관련된 뒷자리가 명혈지라고 주장하여 객관성이 극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 명혈지에 대해서도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신을 객관화시켜 동의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연구 대상 지역으로 한정한다.

6) 裒宗鎬(1969), "風水地理略說," 『人文科學』, 第二十二輯, 1969. 12月., 延世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p.155.

것이다. 대 명혈지에 대한 연구는 우선 1998년 5월부터 예비답사를 1차로 하고 1999년 6월부터 금시대의 명지관으로 알려진 우당 신계생 지관의 직계 제자인 김선우 지관(1921년생)과 함께 2차 답사를 하면서 산도(山圖) 제작과 각 명혈지에 대한 풍수적 해석을 채록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지형도와 사진 등을 이용하여 평면적, 수직적 지형을 재구성하여 명혈지의 자연지리적 경관과 그 풍수적 특징을 해명하려 했고, 채록된 지관의 논산 내용은 한반도부의 풍수사상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려 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풍수지리가 인간의 지적(知的, 眞), 의적(意的, 善), 정적(情的, 美), 신적(信的, 聖)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전제하여 연구 패러다임을 개념을 산출하는 논리적 설명과 심상(心像)을 산출하는 직관적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이 부분이 종래 모든 풍수지리 연구와 다른 점으로서 연구자가 단순히 객관적 관찰자로서만이 아니라 주관적 행위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법에 대한 회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사물들과 사건들은 인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경험되어진다. 말하자면 자연경관은 이해되고 느껴진다는 것이다.

지리학과 미학이 서로 적대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된다. 즉, 지리학자는 느끼지 못하고 예술가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믿음은 전적으로 틀렸으며, 실제로 그것은 예술가와 과학자의 활동들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한다.⁷⁾ 풍수신앙은 물질적 육신에 의하여 방해를 받는 추상적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에 있다. 신앙은 공간적인 형태와 형상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예술을 필요로 한다.⁸⁾ 종교·예술·도덕·과학의 길은 서로 교차될 뿐만 아니라 서로 합해진다.⁹⁾ 지리학 특히 문화지리학 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하여 이러한 사조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연구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풍수지리 경관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설명 언어들로 사용했다. 풍수지리 경관의 공간적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관찰지점에 따라서 장소가 상이하게 지각되기도 하므로 경관의 형식을 엄격하게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풍수지리는 일종의 지형(地形) 혹은 경관

7) P. M. 켈트너 저(1975)/정순복 역(1996), 『존 듀이 미학입문』, 예전사, p.

8) 게라두스 반 데르 레우후 지음/尹以欽 譯(1988), 『종교와 예술』, 열화당, p. 14.

9) 상계서, p. 25.

(景觀)을 느끼고 이해하는 이론체계이며, 동시에 지형 혹은 경관을 과학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점(點)과 선(線)과 면(面)으로 이루어진 풍수지리경관(geomancy landscape)을 우선 평면적으로 후광경관(後光景觀, halo landscape, backbone landscape), 전당경관(殿堂景觀, fane landscape, bright-yard landscape), 외당경관(外堂景觀, profane landscape, out-yard landscape)의 셋으로 나누었다.

전당경관의 구성은 穴(cave-point, 正殿), 堂(front-yard, 明堂), 砂(enclosure, 牆垣) 등 세 가지 경관 요소로 되어있다. 풍수지리경관의 중심이 되는 전당경관이 성화(聖化)된 기반경관(based landscape, 혹은 site landscape)을 이룬다면, 또 하나의 성화된 후광경관과 속화된 외당경관은 조망경관(prospect landscape 혹은 situation landscape)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¹⁰⁾

기반경관과 조망경관은 별개가 아니라는 관점에 따라 게슈탈트심리학에서 말하는 형상과 배경의 반전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관(reversible landscape)이지만, 조망경관이 주관적, 감각적, 미적 경관이라면 기반경관은 절대적 혹은 객관적, 논리적, 자연지리적 경관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다. 초점에서 멀어질수록, 즉 穴에서 전경(前景, 明堂)으로, 전경에서 중경(中景, 案對)에 이어 원경(遠景, 外堂, 朝山)으로 갈수록 자연지리적 구조는 형태로 변하여 미적 경관이 되어 경관 기호들은 의미레벨이 되어 미적 판단

10) 전당경관은 초점경관을 향하여 구심력을 강하게 가지며 방사대칭경관을 이룬다. 이것은 우주와 땅과 사람(神)을 연결하는 중심의 상징인 전당경관이 이를 둘러싸고 있는 경관들에 의해 내부를 향해 수렴성을 갖는 포지티브 스페이스(P-space)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당의 조망경관은 바깥으로 향해 발산성을 가진 네거티브 스페이스(N-space)라 할 수 있다. 전당을 이루는 공간은 원형으로서 정형, 달리 표현하면 형상(figure)이 되나, 외당경관은 무정형, 즉 배경이 된다.

실제적으로 기반경관은 절대경관이기 때문에 게슈탈트이론에서 '형상'에 해당하지만, 상대경관이라 할 조망경관에 의해 전당공간의 성력(聖力)은 달라지기 때문에 조망경관 역시 중시된다.

모든 풍수지리경관 요소들은 오직 —관찰자의 시점과 일치하는— 초점경관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중에 사실레벨의 기호에 의해 표현 가능한 기반경관은 자연지리학의 정량적 논리에 의한 지적 판단과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다하더라도 소위 명당이라 하는 기반경관 요소 중의 공변경관, 좌청룡우백호의 사산(砂山)인 경계경관을 포함해서 이 바깥의 조망경관(후광경관, 외당경관) 모두는 의미레벨의 기호로 표현되어 미적 판단과 이해에 의해 명명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일괄하여 조망경관(prospect landscape)들이라 한다.

에 의해 해석 이해되고, 반대로 초점에 가까울수록 형태는 규범지리학적 구조를 강조하게 되어 지리적 경관으로 경관기호들은 사실레벨이 되고 논리적 판단에 의해 분석 설명되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리미학의 등장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 지리미학은 인간주의지리학으로서 미학, 기호학, 해석학, 현상학, 윤리학, 종교학, 게슈탈트심리학을 종합 텍스트화하여 도구로 삼는 문화지리학의 한 분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하게 되는 것은 '명산(名山)에 명당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풍수지리 모두가 아름다움(美)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데서 일반 미학(美學)과 차별화되는 것이다.

다음에 풍수지리경관을 조망성(眺望性)에 의해 전개형경관(展開型景觀, panoramic landscape), 위요형경관(圍繞型景觀, enclosed landscape), 원야형경관(原野型景觀, field landscape), 지세형경관(地勢型景觀, feature landscape), 천개형경관(天蓋型景觀, canopy landscape), 상관형경관(相觀型景觀, physiognomic landscape)으로 나누어 선택적으로 설명한다.

2. 명혈지의 분포와 경관해석

'산상혈지(山上穴地)'라고도 불리는 고산명혈지는 사라, 개미, 영실, 돌트멍, 반데기왓, 반내왓 등의 6대 명혈지 중 사라, 개미, 영실, 돌트멍 등 4개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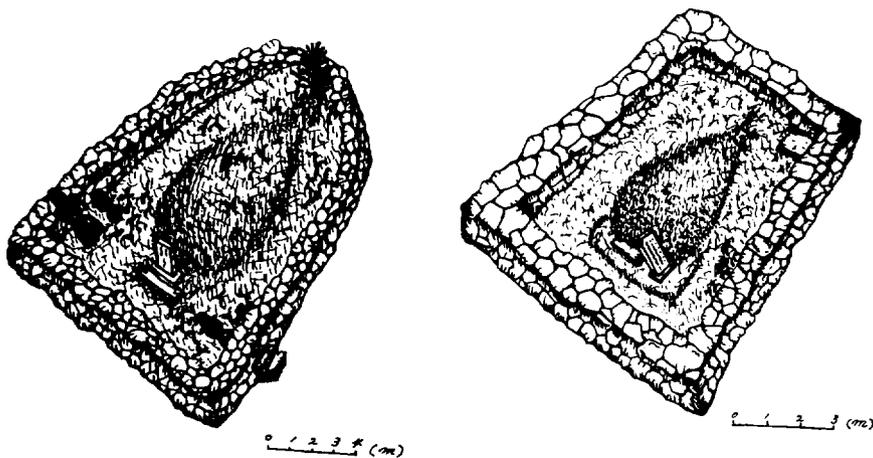
이들 산상혈지는 소위 천교혈(天巧穴) 내지는 팔풍취혈(八風吹穴)에 해당될 수 있는 지점들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산정부에는 무덤을 쓸 수 없으나 천교혈이라는 혈이 맺히는 수가 있는 것이다. 폭 꺼진 진흙밭 속에 무덤을 쓸 수 없으나 '몰니혈(沒泥穴)'이라는 혈이 생길 수가 있다. 또한 사방에 바람막이가 될 만한 언덕 하나 없이 찬바람이 뽀뽀 거리는 곳에 장사 지낼 수 없으나 '팔풍취혈(八風吹穴)'이라는 명당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연못이나 호수 가운데 명당이 있을 수 없으나 '수중혈(水中穴)'이 있게 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괴혈 혹은 교혈(巧穴)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괴혈이나 교혈을 잘못 쓰는 경우 그 후손뿐만 아니라 그 혈을 잡아준 풍수까지도 화를 당한다고 한다. 주의할 것은 산꼭대기에 천교혈이 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산 정상 한 가운데 명당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분맥 사이에 마치 등잔이 벽

에 걸린 듯, 혹은 높은 처마 밑에 제비집이 붙어 있는 듯한 형상으로 혈이 하나 맺히는 것을 말함이다. 또한 설사 괴혈이 분명하더라도 다른 일반혈(窩·鉗·乳·突 型)과 마찬가지로 명당으로서 갖출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괴혈들도 궁극적으로 네 가지 혈 가운데 어느 한 가지로 다시 귀속시킬 수 있어야만 진혈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들 명혈지를 설명하는 제주의 지관들은 와검유돌(窩鉗乳突)에 따른 설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아마 이런 경향은 제주도의 묘당들이 다른 지방 혹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전광후협(前廣後狹)한 '용미묘'라 불리우는 묘당의 축조양식 때문에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주도의 묘당경관을 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고산지역에서든 평지에서든 거의가 사방을 자연괴석으로 둘러싼 '산담'이라는 울타리가 구(龜, 後壁)·용(龍, 左壁)·호(虎, 右壁)·작(雀, 前壁) 등 명당[樂園]의 영역을 표시하고 증거삼는 소위 사신사(四神砂)를 대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믿어진다. <그림 1>의 전방후방(부등변 사각형) 산담과 전방후원(반타원형)의 산담은 평지에 묘를 쓰는 사위 개방형의 중국 묘당양식과 정반대이며, 묘 뒷부분만 반월형의 곡장(曲牆)을 둘러는 반개방형의 한반도부의 묘당양식과도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림 1> 산담의 제주도 묘당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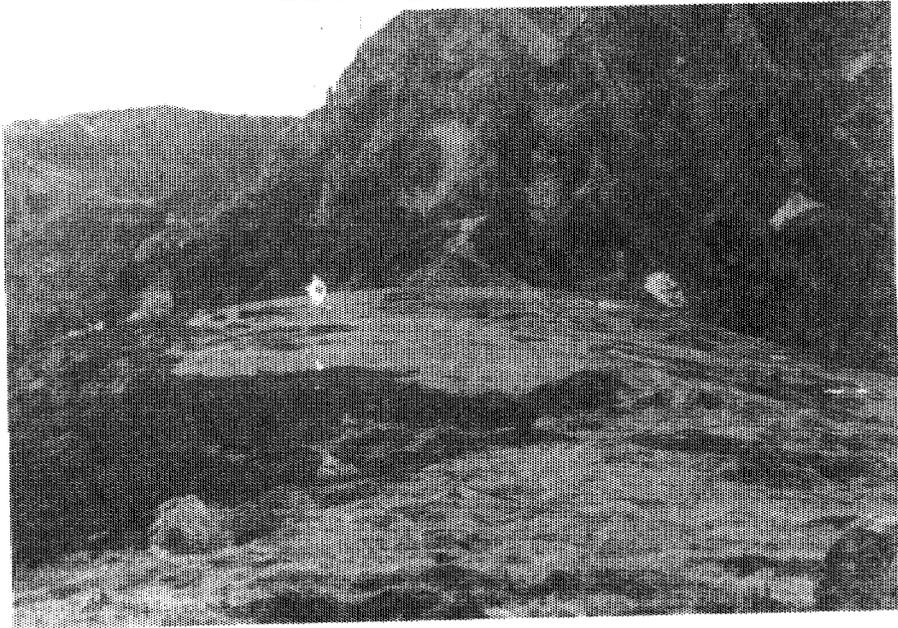
전방후원형 (前方後圓型, 돌트멍)

전방후방형 (前方後方型, 영실)



고산 명혈지의 수직적 분포를 보면 해발 1,000m에서 1,800m 범위에 있는데, 가장 높은 상한계를 갖는 명혈지는 해발 1,620~1,700m(묘의 분포에 의한 광의적 해석으로 1,550~1,800m)의 돌트멍 명혈지이며, 다음이 개미목 명혈지의 상한계는 해발 1,480m까지 된다. 주자 부친묘로 불리는 영실 명혈지의 상한계는 해발 1,450m가 되며, 다음에 사라악 명혈지의 상한계는 해발 1,280m가 되고 있다. 제주섬에서 하늘 아래 첫 분묘는 돌트멍 명혈지 바로 위 백록담 북서벽 바로 아래에 있다. 이 지점은 돌트멍 명혈지의 지맥이 시작되는, 한라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측화산인 장구목(1,860m)과 백록봉(1,950m) 사이의 1,900m 고지경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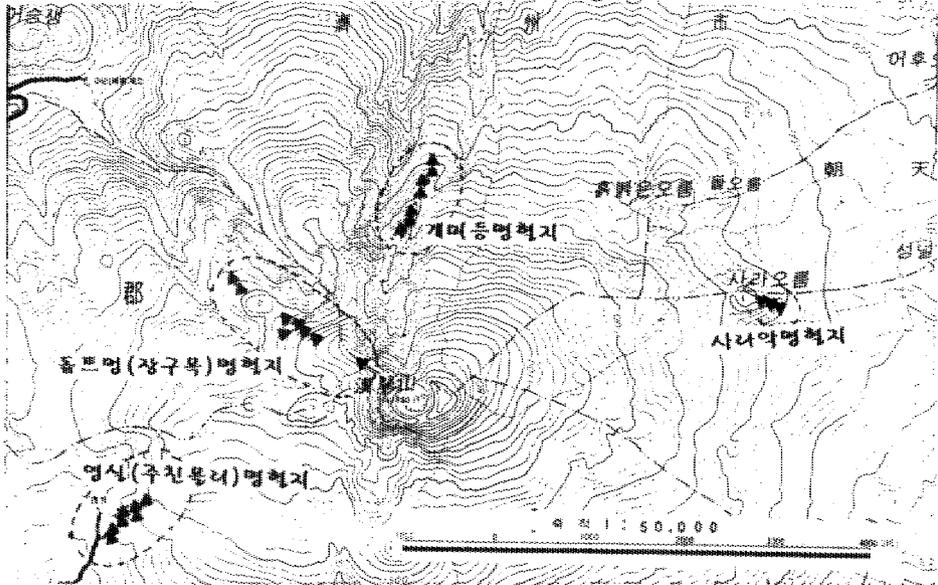
<그림 2> 하늘 아래 첫묘(장구목)



*자료 : 필자 촬영

'용이 길면 혈은 졸(拙)하고, 용이 짧으면 혈대(穴大)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고산 명혈지는 모두 혈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3〉 신상 4대명혈지상의 묘당분포와 지세



해발 1,000m 이상에 있는 고산 각 명혈영역내에는 사라악명혈지 영역(약 0.1km) 내에 3기, 개미목 명혈지 영역(약 5.5km) 내에 7기, 돌트명 명혈지 영역(약 5.8km) 내에 8기, 영실명혈지 영역(2.6km)에 7기해서 모두 25기가 있다. 물론 이 중에 몇 기는 무연분묘가 되어 버리거나 이장해 버린 묘도 있다. 특기할 것은 이들 묘 모두가 생장(生葬)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던 묘를 명당을 찾아서 다시 이장(移葬)한 이묘(移墓)들이라는 것이다.

사라악(정상 해발 1,338m) 명혈지에는 수직의 일직선으로 해발고도 1,260~1,280m 사이해서 약 20m내에 3기의 묘가 일직선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개미목 명혈지 영역내에 7기가 역시 지맥을 따라 발 1,260~1,480m(직선거리 약 1km 범위) 사이에 등산로 좌우에 바로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다.

다음에 돌트명 명혈영역의 8기는 해발 1,640~1,900m(직선 거리 2km 범위) 사이에 분포하는데 중간 부분에서는 묘가 좌우로 병립하여 있는 경우도 있다.

영실 명혈영역내의 7기는 1,400~1,500m(직선거리 200m) 범위내에 분포하고 있는데 상단부에 있는 주자 부친묘와 꼭산 강씨묘만 좌우로 병립하고 나

머지는 일직선으로 지맥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평면적으로 보면 고산 명혈지는 백록봉(백록담)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형성된 네 갈래의 능선 지맥을 따라 분포하고 있고 모두 등산로와 인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등산로들은 물론 태고 때부터 한라산 정상 부까지 행해졌던 이목생활시에 마소들과 목동들이 만들어 놓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답로였던 것이 뒤에 등산로가 된 것이다.

고산 제1의 사라악 명혈지는 한라산등산로 4개 중의 하나인 성판악코스 연변에 있다. 사라악 명혈지는 성판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약 5.6km 떨어져 있는 사라악대피소 바로 지나 왼쪽으로 약 400m 걸어들어간 지점에 있으며, 이 지점은 백록담에서는 약 4km 아래 지점에 해당된다. 한라산등산로 중 관음사코스상에 있는 고산 제2의 개미목 명혈지는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관리사무소에서 약 5km, 백록담에서 약 2.5km 떨어진 지대에 있다. 다음에 고산 제3의 명혈지인 돌트멍 명혈지는 한라산등산로 중 어리목코스 연변에 있다. 돌트멍 명혈지는 한라산국립공원 어승생관리사무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3km 올라간 지점에 있으며, 백록담을 기준할 때는 약 1.5km 아래 지대가 된다. 고산 제4의 명혈지인 영실명혈지는 영실관리사무소에서 약 1km 올라간 지대로서, 백록담에서는 약 3km 아래로 내려온 지대가 된다.

제주 제1의 명혈지가 있는 사라악은 한라산 고지대의 백록담 동산쪽, 성판악 등반 코스 남측 산정화구호를 갖고 있는 오름으로, 남제주군 남원읍과 북제주군 조천읍의 경계에 걸쳐져 있다.

사라악은 제주도내 오름(축화산) 중 가장 높은 표고에 위치한 산정화구호를 갖고 있으며 화구호는 접시 모양으로 그리 깊지는 않으나 둘레가 약 250m, 화구륜의 길이는 약 1.2km가 되며, 화구륜 중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325m가 된다. 한라산 정상 백록담 동쪽에서 발밑을 내려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사라악 화구호이다. 사라악 화구호는 전체 한라산 산록에 위치하는 축화산에서 예닐곱밖에 안되는 화구호 중 가장 높은 고지에 있다.

『오름나그네』를 쓴 김종철은 그의 책에서 “꽤 높은 지대인데도 화구 안의 풀밭이나 숲속 ‘곳곳에’ 무덤을 볼 수 있다. 물속에 무덤이 있다는 말에 무척 와보고 싶어했던 어릴 적의 기억도 있다. 그 호기심은 결국은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런 소리가 먹혀들 법도 할만큼 이곳의 묘자리는 모두가 명당

으로 보인다.”라고 쓰고 있다.¹¹⁾ 그러나 화구안에는 풀밭 곳곳에 무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화구륜의 남남동쪽에 3기가 나란히 줄지어 자리할 뿐이다.

이 3기의 묘는 10~20m 간격을 두어 종열로 줄지어 계단상으로 비스듬한 사면지형 위에 줄지어 있는데 좌향은 맨 아랫묘(김해 김씨묘)와 맨 윗묘 두기는 손좌건향(巽坐乾向)이고, 가운데 묘는 그보다 약간 왼쪽으로 이동한 사좌해향(巳坐亥向)을 하여 대체로 남동쪽에서 북서쪽을 바라보며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선우 지관은 이들 세 묘보다는 동좌서향(庚·酉坐)할 수 있는 화구괴(화구 입구)의 서쪽 사면 어느 한 자리가 진혈처라고 주장한다.

사라악 명혈지의 시간 경관기호의 형태를 보면 한라 영봉의 동쪽으로 뻗어 내리는 지맥상 가장 윗쪽에 있는데, 이 지맥은 백록담-사라악-성널오름-물오름-괴평이오름-거문오름-붉은오름-구드리오름-동부측화산지대에 이어 종달리 해안의 두산봉까지 이어지는 한라산 최장의 지맥이다. 아마 이런 지맥경관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영봉의 지맥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사라악으로 하여금 제주 제1의 명혈지가 되도록 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된다. 여기에 사라악 명혈지는 기존의 묘를 기준할 때 이들 묘 모두가 용맥이 시작된 영봉으로 되돌아 앉은 풀이 되기 때문에 풍수에서 가장 선호하는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이 되기도 한다.

사라악 명혈지의 전당경관은 해발고도 1,200m 이상에 위치하지만 화구륜으로 둘러싸인 분지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화구륜 밖 사면을 따라 상승해버리거나 빗겨 가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화구내에는 매우 온화한 기분이 든다. 혈처 뒤쪽 약 40°의 경사를 이루는 화구륜 바깥 사면은 1980년도에 이 일대가 산불이 크게 나서 나무를 모두 태워버렸음에도 화구륜 안쪽 사면은 불길기 전혀 닿지 않아 천연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특이 경관이 보이기도 한다.

사라악 명혈지는 영산인 한라산의 기반경관(based landscape 혹은 site landscape)으로 인해 걸출한 地勢景觀(feature landscape)을 가짐과 동시에 전형적인 위요형경관지(enclosed landscape)로 본신(本身) 자체가 용호 및 안산 등의 사신사(四神砂)를 이루고 있다. 즉 전당(殿堂)의 뒷받침으로서의 현무, 그리고 장원(牆垣)으로서의 왼쪽 울타리인 좌청룡, 오른쪽 울타리인 우백호가

11) 金鏞喆(1995), 『오름나그네 1』, 도서출판 높은오름, p.177.

대칭적으로, 깔끔하게 명당 건너 앞쪽의 수구(水口)에 상응하는, 대문적인 화구뢰(火口瀨)만을 비워 놓고 완전히 에워싸고 있어 경관의 완결성(closure)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수구 너머로는 안산 역할을 하는 흙붉은오름이 년지시 보인다. 여기에 대칭적인 구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사신사가 정위하고 있어 대칭성(symmetry)도 잘 갖추고 있다 하겠다. 수구 혹은 파구는 성(聖)과 속(俗)의 두 세계를 구별하고 분리하는 한계이자 경계선이고 성문인 동시에 그러한 세계들이 서로 만나고 속된 세계에서 성스러운 세계로 이행할 수 있는 역설적인 장소인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간 연속성의 단절을 명료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사라와 명혈지의 입지와 지세



『손자병법』의 애형(隘形) 경관을 이루는 수구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행의 상징이자 매개자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요소이다. 그런데

얼핏 볼 때는 등산로가 되고 있는 단하나의 북서향에 있는 화구뢰가 물이 빠져 나가는 수구(水口)일 것 같으나 실제로 화구내의 물은 습지식물인 완골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동쪽의 습골을 통하여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구의 지칭은 물이 빠져나가는 실제 출구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경관의 형태에 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물의 흐름보다 보이는 지형경관을 우선시하는 이 부분은 제주풍수에 있어서 매우 특기할만한 내용이다.

또한 사라악명혈지의 경관 요소들은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안정된 형상(good figure)이 지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경관을 구성하는 정보가 적을수록 형상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최소의 원리(minimum principle)'가 잘 적용되고 있다 하겠다.

명당(明堂)에 해당하는 화구원은 우기 때는 사진에서처럼 명경지수의 호수를 이루어 아름답기 그지없으며, 건기 때는 물이 말라 넓은 운동장 그대로의 모습을 이루어 매우 독특한 무상(無常)의 상관경관(physiognomic landscape)을 이룬다.

〈그림 5〉 시리와 명혈지

우기 경관(1999년 7월)

갈수기 경관(1999년 5월)



※자료 : 필자 촬영

다만 혈장의 초점을 향해 수렴성을 가진 포지티브 스페이스(P-space)로서 전당 형상(形象)의 중심적 상징성은 완결에 가까울 정도라 할 수 있지만, 바

같으로 향해 발산성을 가진 네거티브 스페이스(N-space)¹²⁾로서의 배경(背景)이 가려져 있어 근조(近朝), 원조(遠朝) 등의 조산을 보게 하는 조망감이 없는 것이 흠이다. 백리내룡에 백리 이내의 조산, 천리 내룡에는 천리 내의 조산이 유효하다고 하였다.

다음 제주 제2의 개미목 명혈지는 한라산 등반로 4개 중 하나인 바로 관음사코스 상에 있다. 제주시에 속하는 한라산 산정의 중앙부를 차지하는 개미목 명혈지의 시간경관을 나타내어주는 지맥은 백록담-삼각봉-개미등-개미목으로 이어진다. 개미목 지맥상에는 삼각봉 바로 밑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고도 약 700m 사이에 모두 7기의 묘가 있다. 그 만큼 개미목 명혈의 기반경관이 웅대하고 광대함을 말해준다. 이들 7개의 묘의 좌향을 맨 위의 ①번 묘에서 ⑦번 묘까지의 좌향을 보면 ① 정좌계향(丁坐癸向) ② 오좌자향(午坐子向) ③ 미좌축향(未坐丑向) ④ 곤좌간향(坤坐艮向) ⑤ 곤좌간향(坤坐艮向, 梁家之墓) ⑥ 정좌계향(丁坐癸向) ⑦ 곤좌간향(坤坐艮向)으로 되어 있어 대체로 남남서에서 북북동을 향하고 있다. 삼각봉에 아래로 약 200m 내려온 지점에 있는 ②번 묘는 묘를 관리하지 않아 큰 나무들이 봉분에 침입하여 자라 골충이 되어 버렸고, 삼각봉에서 약 700m 내려온 지점에 있는 규모성을 갖는 ⑦번 묘는 이미 이장하여 버리고 있었다. 김선우 지관은 이 7개의 묘 모두 진혈처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진혈처는 <해발 1300m>를 알리는 동산안내표지관 부근의 ⑥번 묘와 ⑦번 묘 사이의 곤좌간향(坤坐艮向, 북동향)의 한 지점이 진혈처라고 주장했다.

개미목 명혈지는 경관이 사라악명혈지처럼 사위가 성역경관으로서의 용호의 사신사에 의해서 뚜렷하게 위요되지 못하여 중심부인 전당경관(殿堂景觀)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괴혈(怪穴)의 일종인 천풍혈(天風穴)이 있게 되는 장소이다. 즉, 전당(殿堂)의 왼쪽 울타리가 되는 <조근두레왓>이 좌청룡의 역할을 하고, 전당의 오른쪽 울타리가 되는 <큰두레왓>이 우백호의 역할을 하나

12) 네거티브 스페이스로서의 외당경관은 소위 『손자병법』에 나오는 산만해지기 쉬운 산지(散地), 동요하기 쉬운 경지(輕地), 서로 맞았다 빼앗겼다 하는 쟁지(爭地), 나가고 들어오기 쉬운 발판이 좋은 교지(交地), 교통의 요지로 각 지역과 서로 통할 수 있는 구지(衢地)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포지티브 스페이스인 전당경관은 산이나 강으로 둘러싸여 안정된 위치(關地)가 되며, 후광경관은 고지(圍地, 背固崩隴)라 이름할 수 있다.

성현공간으로서의 특히 초점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가 낮아 성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짜임새 있는 전당공간(殿堂空間)을 형성하는데 허한 느낌을 주고 있다. 즉, 경관적으로 완결성, 대칭성 등에서 미흡함이 있을뿐더러 수구의 형태 역시 불명료하다.

<그림 6>개미목 명혈지의 골충(무연분묘)



*자료 : 필자 촬영

그럼에도 개미목 명혈지는 사라악 명혈지처럼 웅장한 한라 영봉을 가까이 하여 입지하기 때문에 지세경관이 결출하여 사라악보다 더 넓은 공간상의 대지(大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적 전개형경관(panoramic landscape)이 펼쳐져 시야가 제한받지 않고 멀리까지 시원하게 트인 경관을 이루어 조

망경관이 모두 조감적으로 보여 광활한 대지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따라서 후광경관으로서 주산에 대응하는 앞면의 네거티브 스페이스에 펼쳐진 높고 낮은 조망경관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지평선과 수평선이 가로로 놓여 있어 중력의 지지감을 주는 이들 수평의 선에 의하여 안정되고 조용하며 수동적이고 평화, 고요함,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그림 7> 개미목 명혈지의 입지와 지세



풍수서에 개미목 명혈지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 중에는 스스로 자위(自衛)한 용도 있으니 본신이 풍성하게 높고, 중후하며, 사면이 두둑하고 넉넉하게 높이 쳐들어 혈을 호위하니 이런 용은 바람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물이 과다하지도 않아 걱정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러한 용은 용세가 없어도

실지 역량이 중후하여 부자도 나고 귀인도 나지만 이런 혈을 찾아 정함에는 신중히 잘 검토하고 경솔히 판정하여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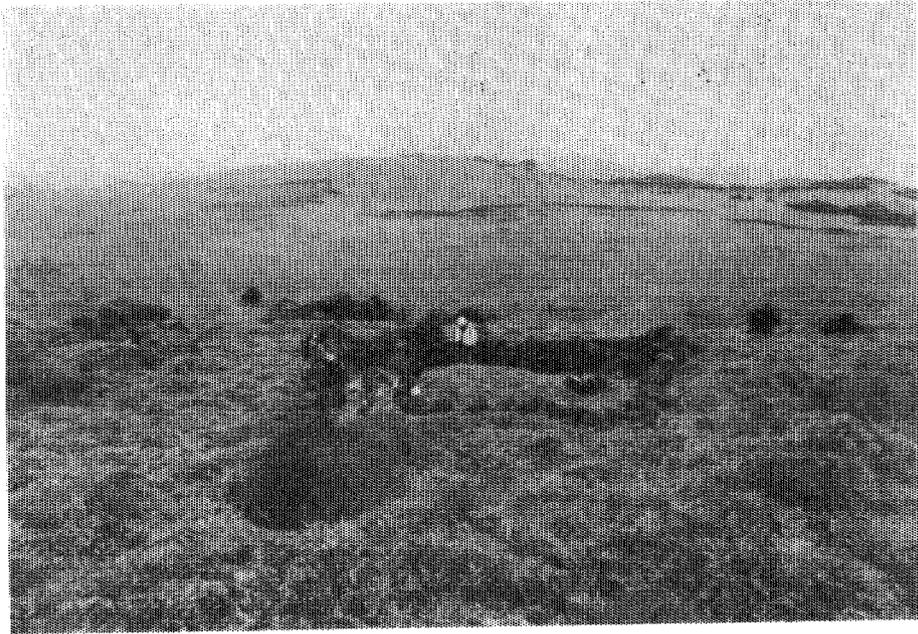
천 길 만 길 되는 언덕용(壘龍)이 둔덕 위에는 멀리 조회하는 산과 물이 읍하듯 내조하면 반드시 더할 수 없이 높고 큰 혈이 생긴다.¹³⁾

제주 제3의 돌트명 명혈지는 제주도에 있어서는 하늘 아래 제일 처음 나오는 죽은 자의 집(陰宅)인 묘지가 위치하는 명혈지로 영역의 상한계가 해발 1,800m나 되고 있다. 돌트명 명혈지는 해발 1,550m에서 백록담 서북벽을 바로 내려선 지점인 1,800m까지 약 250m의 고도 범위를 갖는 지역으로 광역적인 전당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 명혈지는 백록담-장구목-돌트명 동산에서 와이(Y)계곡의 합치점에서 끝나는 대지맥상에 있는데 모두 8기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이 중 한 기는 골총(무연분묘)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묘는 일곱 기가 된다.

①번 묘에서 ⑦번 묘까지의 좌향을 보면 맨 위의 ① 손좌건향(巽坐乾向) ② 병좌(丙坐亥向) ③ 진좌술향(辰坐戌向), ③번 묘 바로 아래의 ④번 묘는 손좌건향(巽坐乾向) ④번묘의 남서쪽에 약간 위에 있는 ⑤번 묘는 병좌임향(丙坐壬向), ⑤번 묘 아래쪽에 있는 ⑥번 묘는 손좌해향(巽坐乾向)으로 골총이 되고 있다. 여기서 낮은 언덕을 넘어 다소 멀리 떨어져 자리하는 ⑦번 묘는 <통정대부 마희문지묘>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사좌해향(巳坐亥向)이다. 이 마씨 묘 아래 약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언뜻 보아 골총같이 보이나 금초(禁草)하고 있는 방묘 형태의 진좌술향(辰坐戌向)의 ⑧번 묘가 있다. 이들 여덟 기 묘의 일반적인 좌향은 지맥을 따라 북북서향을 하고 있다.

13) 도선국사 원저(昭平2년)/정관도 해설(1994), 『道詵國師風水問答』, 知詵堂, p. 91.

〈그림 8〉 돌트멍 명혈지 景觀



자료 : 필자 촬영

백록담 서북벽 바로 밑에서 시작되는 돌트멍 명혈지의 경역은 개미목 명혈지처럼 보다 태조산에 가까이 지향하고 있어 천교혈(天巧穴)의 가능성을 보임과 동시에 후광을 이루는 지맥에 장대함은 없으나 출중한 지세경관을 이룬다. 또한 그에 따라서 시야가 방해받지 않고 제주도의 서부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개형경관을 가지고 있어 천풍혈(天風穴)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이기도 한다.

<그림 9> 돌트명(장구목) 명혈지의 입지와 지세



전개형경관을 이루기 때문에 보이는 전망이 또한 조감적으로 보어 광활한 대지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개미목 명혈지에 비견되는 앞면의 외당경관의 네거티브 스페이스에 펼쳐진 높고 낮은 조망경관을 볼 수 있다. 동시에 지평선과 수평선이 가로로 놓여 있어 안정되고 조용하며 수동적이고 평화, 고요함,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개미목 명혈지와 다른 바 없지만 그보다는 더 넓은 조망감이 있다 하겠다. 즉, 전당경관이 되기에 유력한 조망사면(fairview slopes)을 이루기 때문에 후조전응(後照前應)의 형세를 잘 이루고 있는 것이다.

돌트명 명혈지는 절대경관에 해당하는 전당경관의 규모가 워낙 광활하여 경역 면적이 약 5.8km로서 6대 명혈지 중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혈처찾기에 극히 어려울 정도로 전당경관의 범위도 넓어져 맨 위의 묘와 맨 아래의 묘의 직선 거리가 약 2km나 되고 이 범위 내에 8개의 묘가 산재하게끔 되었다. 물론 (차별)침식의 진전으로 구룡성 산지를 이루는 한반

도의 명혈지. 예를 들어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의 <남연군묘>는 경역 면적이 약 10.2km가 되나 후광경관, 외당경관은 물론 주산에 이어지는 전당경관이 명료하고 용호 사백경관에 의한 전형적인 위요경관(enclosure landscape)을 이루어 진혈처가 확연하게 드러나 명당진혈의 모델(概念圖)로 내세우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유년기의 화산지형을 이루는 제주에서는 비록 이 돌트명 명혈지만 아니고 거의 모든 지역에 진혈처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돌트명 명혈지에 8기의 묘가 있다는 것은 정혈을 해준 지관이 여덟 명이고 그 여덟 명 지관 저마다의 주관에 따라 혈소(穴所)가 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돌트명 명혈지의 전당만은 경관적으로 보아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기반경관이라는 면에서 보았을 때 만년 보백지지(保魄之地)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은 결국 전당터의 좌우의 깊은 계곡을 따라 흐르게 되는 용호수가 그만큼 뚜렷함을 의미한다. 백록담 서북벽 바로 아래서 갈라져 나온 와이계곡의 와이(Y)자의 교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용호수는 다른 명혈지에 비해 뚜렷한 분합수를 이루어 전당경관을 전형적인 다이아몬드형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돌트명 명혈지는 후광경관, 전당경관, 외당경관이 모두 걸출하여 방항성이나 대칭성에서 나무랄 데 없지만 좌보우필(左補右彌)하는 용호의 사백경관(砂脈景觀)이 낮아 완결성(closure)이 낮은 형세를 보인다. 즉, 돌트명 명혈지는, 개미목 명혈지와 마찬가지로 괴혈(怪穴)로서 인정해야겠지만, 입수·전순·좌우선익이 확연히 드러나 있으면서 아울러 四神砂가 둘러싸서 단단히 보호하고 있는 명당개념도에 미흡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심공간이 너무 넓어지고 주위 울타리나 낮아 둘러쌈에 의한 완결성이 떨어지는 전개경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에 고산명혈지로는 마지막으로 영실명혈지가 있다. '주친몰리'라 불리는 영실명혈지 역시 네 개의 한라산 등반로의 하나인 영실코스 연변에 있는데, 고도 1,400m 지점에서 시작하여 묘가 분포하기 시작하여 고도 1,500m 지점까지 모두 7기가 있다. 이 고도 100m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300m가 된다. 그리고 좌우쪽은 수십미터에 불과해 면형(面形)이라기 보다는 선형(線形)의 전당경관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 이 범위 내에는 모두 7기의 묘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①번 묘에서 ⑦번 묘까지의 좌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번 묘는 전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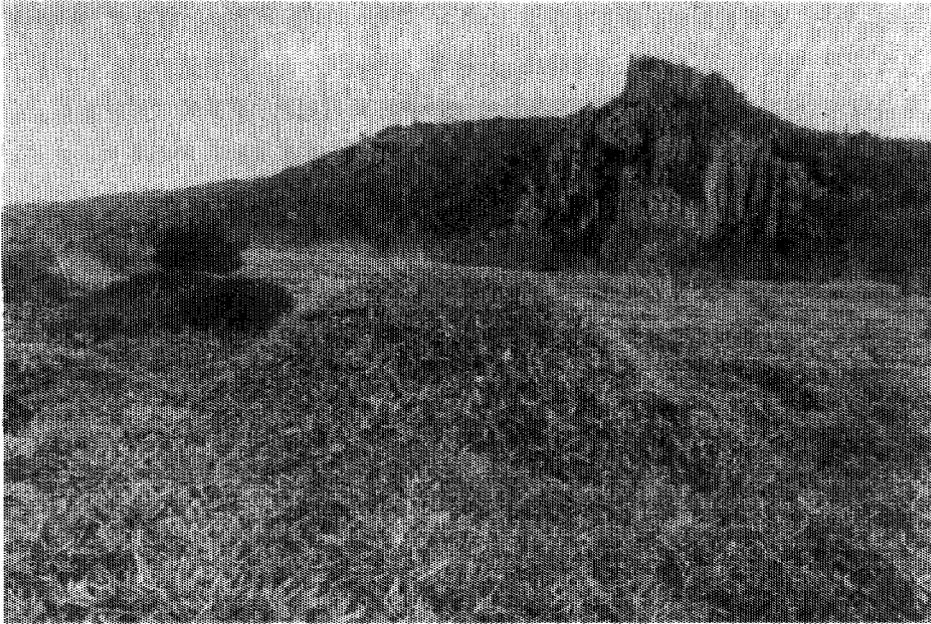
내려오는 중국 주자(朱子)의 부친 묘로서 간좌곤향(艮坐坤向) ②번 묘는 곡산(谷山) 강씨(康氏) 묘로서 간좌곤향(艮坐坤向) ③번 묘는 간좌곤향(艮坐坤向) ④⑤번 묘는 무연분묘(골충) ⑥번 묘는 축좌미향(丑坐未向) ⑦번 묘는 艮坐坤向으로 영실명혈지의 묘들은 지맥을 그대로 따라 남서향을 하고 있다.

<그림 10> 영실 명혈지의 입지와 지세



영실명혈지의 후광경관에서 보여주는 지맥은 백록담-윗세오름-삼불봉(오백라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후광이 되는 지맥이 다른 고산명혈지에 비해 가장 뚜렷하게 갖춘 모습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지세가 영실명혈지를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도 보여지지만, 백록담은 태조산(太祖山)이 되고 윗세오름은 중조산(中祖山), 삼불봉은 조산(祖山)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영실명혈지의 후광경관은 태조산, 중조산, 조산이 모두 한라산 영봉인 백록담 자체가 되는 사라명혈지, 개미목 명혈지, 돌트명 명혈지와 매우 다른 모습인 것이다.

<그림 11> 영실(주천물리) 명혈지 경관



*자료 : 필자 촬영. 김선우 지관에 의하면 중앙에 보이는 묘(곡산 강씨묘) 오른쪽 나무 사이의 갈색의 봉분이 중국의 주자(朱子) 부친 묘라고 한다.

개미목 명혈지나 돌트명 명혈지가 용호의 사막에 의한 위요경관에 미흡함이 있었듯이 영실명혈지 역시 기반경관 즉, 전당경관의 광대함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울타리가 되는 경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천풍혈의 괴혈을 이루고 있는 명혈지이다. 영실지역에는 영실명혈지로 지목된 오백라한 능선 말고 바로 영실계곡 안에도 모두 4기의 묘가 불래오름으로 안산으로 하여 자리한다. 그런데 이 영실계곡 혈지는 왼쪽의 오백라한맥과 오른쪽의 병풍바위맥에 의해 경관 요소의 근접성과 대칭성을 잘 갖추었으나 좌우보궐의 기능을 갖는 용호의 사막경관이 전당경관에 위압을 줄 정도로 높고 커 버려서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개체에 따라서는 심하면 불안전함, 침울함까지 느낄 정도다. 뿐만 아니라 뒷세오름맥이 계곡으로 이어지는 상태가 급락하여 지맥의 연결성보다는 단절성을 보여 명혈지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실명혈지는 규모면에서 큰 위에 암반의 지질구조상에 있어 만년 보백지지의 기반경관을 갖추어 조망사면을 이루기 때문에 우수한 전개경관 명혈지가 되어 포지티브 공간의 실용성을 잘 갖추고 있다. 따라서 포지티브 공간의 전당경관이 미흡함이 있지만 네거티브 공간의 안대(案對)로 삼은 서귀포시 중문동의 녹하지오름과 조산(朝山)으로 삼은 마라도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고 수평선에 의한 안정감과 넓은 바다에 의한 넓음이 갖추어져 외당경관 역시 출중하다 하겠다.

제주 6대명혈지 중 고산명혈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명혈지는 한림읍 금악리의 반내왓 명혈지와 남원읍 의귀리의 반데기왓 명혈지이다. 이 두 개의 명혈지의 영역은 둘다 해발고도 300~350m 사이에 낮은 내륙 평원(淸水用어 平岡)지대에 입지하고 있어 산지경관과의 관련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평강명혈지(平岡明穴地)라 부를 수 있다. '태산용은 가지에 혈을 맺고 평지용은 돌상(突上)에 혈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들 두 명혈지는 모두 평탄한 지형 위에 돌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약 1.1km²의 공간 면적을 갖는 반데기왓명혈지는 내용호사맥 경관과 외용호사맥 경관을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뚜렷하게 대칭성을 보여주는 내용호사맥 경관은 혈처에서 약 300~500m의 거리를 두어 유정하게 혈을 감싸고 있어 완결성 있는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외용호사맥은 거인악에서 분기되는데 외청룡사맥은 거인악에 여절악으로 이어지고 외백호사맥은 동남오름에서 고이악 맥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규모성을 갖는 용호수, 즉 외청룡수로 의귀천의 지류와 외백호수로 서중천의 지류가 바로 주산이 되는 민오름의 뒤에 분류되며 의귀리 마을 부근에서 합류되어 풍수에서 중요시되 분합(分合) 경관을 잘 갖추고 있다.

반데기왓 명혈지는 장원에 의해 둘러 싸인 성전(聖殿, 穴), 성당(聖堂, 庭)의 포지티브(殿堂) 공간이 명당개념도에 부합되고 있다. 그럼에도 원야형경관지(原野型景觀地, field landscape)를 이루기 때문에 당(front-yard)이 넓어 개활감을 주기는 하나 초점이 되는 혈과 기를 모아주는 반사면의 역할을 하는 장원과의 거리가 멀어 위요경관지인 사라명혈지와 같은 안정된 경관(good landscape)을 이룬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 원야형경관지에서 오는 또 하나의 불리한 점은 네거티브 공간인 외당경관을 일목요연하게 조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탄지의 평강명혈지이기 때문에 용호수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단지 '한 치라도 높으면 용이요, 한 치라도 낮으면 물이다(一寸高龍一寸低水)'라는 원리를 적용 설명되고 있다.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반데기왓의 혈은 그 후맥에 근친의 묘들이 몇 기 더 있으나 현마 공신인 망자의 묘 단 하나로 귀결되고 있다.

다음에 금악리의 반내왓 전명혈지는 반데기왓 명혈지에 비해 더욱 원야형 경관지를 보이는 곳이 되고 있다. 반내왓 명혈지의 후광경관 혹은 시간경관으로서의 지맥은 백록담-윗세오름-한대오름-다래오름-동물오름으로 이어져 6대 명혈지에서 가장 긴 후맥을 이루어 글자 그대로 후광의 세를 크게 과시하고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하겠다. 아울러 용호 사맥은 조산이라 할 동물오름에서 분기 되어 좌청룡은 왕이매-당오름-정물오름 맥이 되며, 우백호는 새별오름-예달오름-누운오름 맥으로 이어져 용호 사맥의 국세는 제대로 이루고 있다 하겠다. 주산이 동물오름이라고 하나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반내왓 명혈지를 전형적인 평강명혈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포지티브 공간으로서의 전당의 경역이 무려 18.8km나 되어 워낙 넓고 분수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디가 진혈지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거기에다 앞이 좁고 뒤가 넓어야 된다는 명혈개념도의 전착후협(前窄後寬)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있기도 하여 전당경관의 영역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사실상 명당지로 알려진 이 경역 내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금악리 공동묘지가 있어 수많은 묘가 있지만 저마다의 묘지가 진혈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이 되고 있다.

타계한 신계생 지관과 그의 제자인 김선우 지관은 묘가 집중적으로 입지하는 경역의 상부 지역이 아닌 맨 아래쪽에 자리한 갑좌경향(甲坐庚向, 東坐西向)의 양씨 묘가 진혈처라고 주장한다.

양씨 묘가 상부에 집중된 다른 묘지들과 다른 절대기반경관의 특징은 주위 기반이 온통 돌밭이라는 것이다. 이 돌들은 박힌 돌들이라 풍수에서 말하는 음석(陰石)으로, 살아 있는 지하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의 두 지관이 이 양씨 묘를 진혈처로 본 것은 이 음석들 사이에 묘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 같다. 이 근처의 묘들에서 이러한 지표 구조를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는 경우는 없다. 풍수에서 돌과 관련된 기본 수칙은 "바위가 없는 흙산에는 바위가 있는 곳이 명당이요(土山之下 石山而穴), 돌산에는 흙이 있는 자리가 명당이

다(石山之下 土山而穴)". 이 수칙은 명혈지의 절대기반경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역시 묘지가 물리적인 풍화침식에 훼손됨이 없는 만년 보백지지의 최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리켜 주는 사실적 지식 정보인 것이다. 양씨 묘의 주변에는 다습지에 자라는 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지중이 주로 암반층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명혈지에 대한 논산(論山)과 경관의 상징언어

풍수는 하나의 사상이며 종교이자 신앙의 실체이다. 종교는 언제나 신비, 곧 언어형상을 통해서 말한다. 그리고 신화와 상징없는 종교는 없다. 풍수에서의 명당이란 하늘(시간)-조신(인간)-땅(공간)의 관계를 동결 시켜놓은 것이다. 시간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소위 내룡(來龍)으로서의 태조산(太祖山), 중조산(中祖山), 조산(祖山)이니 하는 후광경관(시간경관)의 지맥이 되고 공간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소위 사성(砂星)이라 부르는 용호(龍虎), 안산(案山), 조산(朝山)이니 하는 외당경관의 지물(地物)들이 된다.

여기서 '~산(山)할 때의 산은 조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영혼이 산을 통하여 승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에서도 발견되듯이 사람이 죽으면 냇가에 나란히 묻히 머리만은 산을 향하게 하였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죽으면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산에 올라, 마침내는 승천하게 될 영혼을 기원하며 산에다 묻고 산을 닦은 봉분을 해주고 있다. 이 처럼 현상학적으로 나타난 이 세상과 하늘, 그리고 관념적으로 형성된 현생과 사후세계를 잇는 신성한 매개체로서 산을 숭상하여 왔다. 또한 하늘의 뜻을 받아 이 세상을 보호하고 인간의 일을 관장한다는 수직강하적인 신성성뿐만 아니라, 현생의 완성을 통하여 하늘에 이르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산에 대한 수직상승적인 설정은, 인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 간직된 본질적인 종교성을 접하는 듯하다.¹⁴⁾

14) 具美來(1996),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p. 132.

신도 머무는 집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역화(聖域化)된 전당(殿堂)이다. 전당은 곧 신의 형상화다. 거기에는 후광을 갖추어야 신으로서의 정당성을 얻게 된다. 그것이 곧 후광경관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신이 하나의 집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 어디에서나 권능을 행사하여야 한다. 신의 집안에서는 반드시 신이 통치해야 한다. 즉, 신의 뜻이 영역 안에서 그 통치 표현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신은 거느리고 보필되어야 한다. 신의 존재와 위계공간으로서의 외당경관이 있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화된 전당에 머무는 신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뜻은 반드시 미(美)의 댓가를 치르고 표현되어야 한다. 미의 표현은 환유에 의할 수 있고 은유에 의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징에 의할 수도 있다.

전설에 의하면 제주 제1명혈지인 사라명혈지는 빨리 흥하고 빨리 망하는 '속발지(速發之地)' 혈로 알려졌다. 언제인가 성은 ㅁ이요 이름은 소량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선친을 묻었는데 입장(入葬)을 하고나서 귀가할 때에 엄청나게 비가 와서 상두꾼들이 팔을 끼고 겨우 하산했다고 한다. 그런데 소량은 여기에 묘를 쓰고 돌아서자마자 발복했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속발해도 불같이 되어 좋지 않은 것이 풍수인지라 소량은 역모를 하기 위해 궁중에 들어가 역모를 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음은 물론 그 씨족들까지 수난을 당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 있는 상징성은 성현 공간인 전당경관의 모양이 잘 갖추어졌으나 후맥경관, 즉 백록담에서 사라악에 이르는 지맥이 짧아 바로 발복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장원(長遠)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명당의 조건을 말하는 '천리행룡(千里行龍)에 일석지(一席之地)' 중에 천리용을 이루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명당이 되려면 내룡이라 불리는 후맥이 길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명혈지인 사라악은 <사반형(蛇盤形)>으로 다음과 같이 논산(論山)하고 있다.

峯山一脈東去蛇羅峯端坐中有庚酉坐一穴

한라산의 일 맥이 사라에 이르러 단정하게 뱀처럼 사려 앉아 서향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龍上有天池水明堂有天心水

태조산인 백록담에는 양수(陽水)인 천지물이 있고, 사라악 명당내에는 음수

(陰水)인 천심수가 있다.

內氣融聚外洋寬暢天乙太乙侵雲霄霄甲庚到堂

명당 속의 기운이 모여 뭉치고 명당 밖은 넓고 아름답다. 서북방(辛方)과 동남방(巽方)의 산이 푸른 구름을 뚫고 기운차게 솟아올라 안쪽(主)과 바깥쪽(客)이 명당에서 다정스럽게 마주 만난다.

催官極速百代孫富貴榮華將相出

벼슬길에 이르기를 빨리 재촉하고 자손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문무관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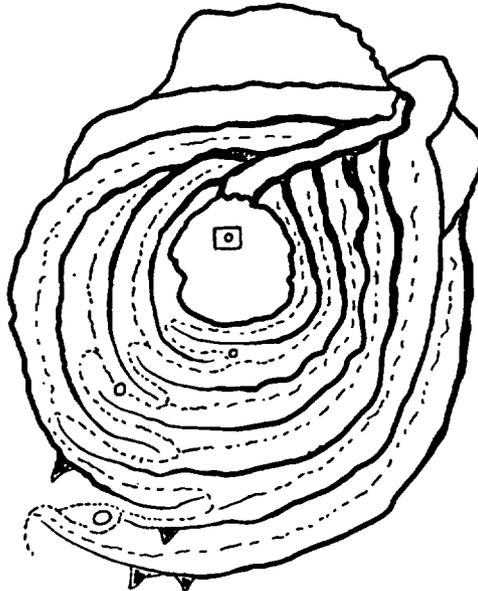
五氣明到山賢人君子多出

오성(五星)의 기가 환하게 산에 비추니 현인군자가 많이 난다.

天藏地秘五福地無積德者何有所望乎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기니 적덕을 쌓지 않는 사람이 어찌 기대하리오.

<그림 12> 사라와 명철지 풍수도



※자료 : 김선우 지관 작도

그리고 제주 제2의 개미목 명혈지는 <막리장군 겸 황룡용두형(幕裡將軍兼黃龍龍頭形)> 혹은 <사치괘벽형(死雉掛壁形)>, <역두형(逆頭形)>이라고도 한다.

漢擎一脈의 北去三角筆峯下坤申全氣乙辰巽巳駁換復入坤申十餘曲節下申入首而坤坐 한라산의 한 맥이 북으로 흘러 삼각필봉까지 내려가는바 모든 기가 남서방향(坤申)에서 와서 남남동향(辰巽)으로 급격히 벗어나 돌아와 다시 남서방향(坤辰)으로 10여 곡절을 꺾으며 내려와 남서서(申)의 입수에 이어지는 남서좌북동향이 된다.

龍上插角三角青龍腰木火砂白虎上而王冠陵巽丙丁水歸于癸

내용을 따라 올라가면 뿔이 꽃힌 삼각봉이요 청룡은 나무나 불의 모양을 이룬다. 백호를 따라 올라가면 왕관릉이라 남동으로 흘러가는 물이 북쪽으로 돌아가자다.

三吉六秀照光穴文武登科連代連代

사방의 삼길육수가 혈을 모셔 비추니 과거급제의 문무관이 대대로 이어진다.

巽巳方而王冠陵甲科之孫連代連代

오른쪽 뒤의 남동 방향에 왕관릉이 있어 장원급제한 후손이 대대로 이어진다.

坤申方而插千峰聖賢君子間間出

남서방향에 꽃혀진 천봉이 있어 성현군자가 간간이 난다.

坐到不話英雄傑休運可積萬斛倉

자리에 이르면 영웅호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좋은 운수가 곡창에 가득 쌓인다.

伸手摸着案稅錢千萬貫是也

손을 뻗치면 잡힐 것같은 곳에 안대가 있어 세전이 만관이 될 정도다.

青龍腰而木火砂文武兼全富貴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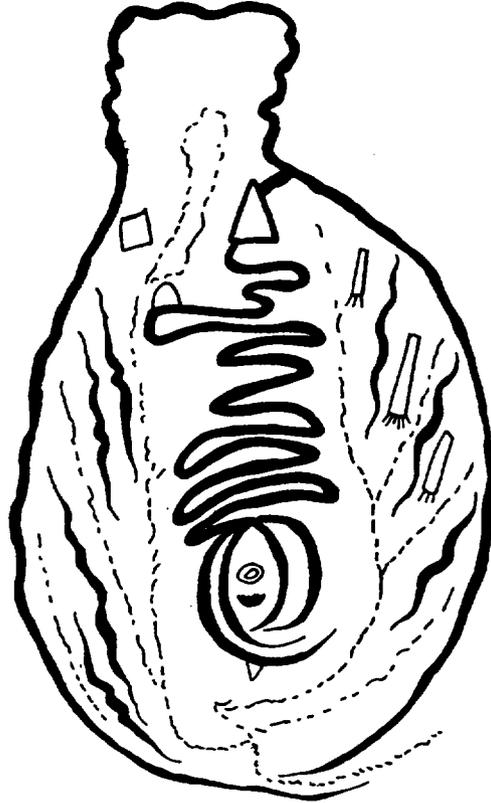
청룡이 나무나 불 모양의 세를 이루니 문무와 부귀를 고르게 지낸다.

天不語兮地不語目豹癸弓用者誰

하늘도 말하지 않고 땅도 말하지 않으니 남서좌북동향에 수구를 갖도록 하는 것을 아는 이가 누구이라.

제3명혈지인 <聖人讀書形地>라 불리는 돌트명명혈지는 한라산 정상에서 북서쪽으로 뚜렷이 발달한 지맥상에 위치한다. 즉, 백록담의 서북벽에서 장구목으로 이어지는 「Y계곡」의 가운데를 이루는 능선의 지맥상이 된다.

<그림 13> 개미목 명혈지 풍수도



※자료 : 김선우 지관 작도

돌트멍 명혈지에 있는 8개의 묘 중 정혈지가 되는 것은 한 기뿐이고 현존하는 7기 중(8기 중 한 기는 이장해 버림) 한 기만이 정혈지가 될 뿐이고 나머지는 독단으로 자리하여 서로 감싸 위해 주는 사성(砂城)들이 없어 금초하는 후손들은 있겠으나 좋은 자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해석되고 있다.

돌트멍 명혈지에 있는 기존의 한 기 외에 다시 정혈지가 있다고 하여 두 곳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산하고 있다.

새로 지적되는 신정혈지는 기존명혈지 북동쪽 위치 乙坐辛向(동동서좌서서북향)의 <靑龍體兼蓮花半開形>이다.

攀山西去五里之下猪頭明下巽龍丙午間帳

한라산 서쪽 5리 아래에 돌트명 아래 부분에 남동쪽으로 용이 들어오고 남쪽과 남남동 사이에 장막이 쳐있다.

良寅駁換甲卯到頭卯入首而乙辛天乙太乙相交陰催官貴人

북동의 용이 휘휘 급전환을 하면서 동쪽(동동북쪽)에 이르러 머리를 들어 입수가 되고 있다. 동쪽(巽方)의 백록담과 서쪽(辛方)의 잔디 둔덕이 서로 마주하여 돌아보니 귀한 내무관직이로다.

辛丙丁庚四山秋麗陽催官貴人

서서북쪽방, 남남동쪽방, 남남서쪽방, 서서남쪽방의 네 산이 지극히 아름다우니 높고 귀한 외무관직이 난다.

辛入乾宮百萬壓하니 石松富가 連代로다

을좌신향한 상태에서 북서방(乾宮)으로 물이 들어가니 석송과 같은 부자가 대를 이어 난다.

乾方雙土砂兄弟論財

북서쪽에 두 형제석이 병립하여 있어 형제간에 재산싸움이 일 수 있다.

두 번째의 기존 정혈지는 巽坐乾向(남동좌북서향)의 높은 성인이 글을 읽는 형(聖人讀書形)으로

巽巳坤申全氣良寅駁換復入巽辰

남동방,북동방, 남서방의 완전한 기운에, 또 북과 동방 두 방위로 휘 쳐들려 바뀌어가지고 남동방으로 다시 돌아온다.

曲直石脈下窩中取突

곧고 구부러진 돌로 된 맥 아래의 오목히 낮은 곳에서 갑짜기 솟아나 자리가 되었다.

辰入首而巽坐二十步前雙筆案

남동쪽에서 입수하고 남동좌한 혈처에서 20걸음 앞에 붓같은 필봉이 세 개가 있다.

壬方暗去富貴兼全壽福雙全

북북서쪽으로 숨어 흘러가는 물이 있으니 부와 귀함을 모두 얻고 수와 복도 모두 얻는다.

良坤峯秀麗少年科舉多出

북동과 남서쪽에 있는 산들이 아름다우니 어린사람들의 과거급제자가 많이 난다.

巽辛來龍相連養生案山上之三角峯同房及第

남동쪽과 서쪽에서 내려온 용이 서로 이어지고 갖 뜻을 세운 공부자로서의 안산 삼각봉 때문에 여러 형제가 동시 급제한다.

初見似之龍聖人讀書

처음 볼 때에 용과 같으나 성인독서형이다.

丙午方の 銀瓶盞酒石松窟

남쪽에 은으로 만든 술병과 잔은 석송과 같은 부합이 난다.

艮寅方金土峯國忠家孝少年貴

북동쪽과 동쪽의 둥근산과 평정산이 있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귀한 소년이 난다.

乾坤艮巽如起動花燭千年日月明이라

천지를 일으켜 세우는 기둥이 움직이는 것 같으니 흰하고 깨끗한 자손이 나와 천년복을 누린다.

라고 하고 있다.

다음에 제주 제4의 명혈지 영실 명혈지는 <靈室漢擊山西腰將軍大坐御營大將九千命令形>이라 한다.

甲龍艮寅駁換寅入首而艮坐坤向丁破

동쪽(甲)에서 내려오는 용이 북북동(艮寅)으로 갔다가 북동동(寅)으로 꾸불거리며 들어오고 북동(艮)에서 남서(坤)로 흘러들어 오는 물이 남향으로 나간다.

生方三峰如筆兄弟文章如太白

생방의 세 개 봉우리가 붓같이 생겨 이태백이 같은 문장가가 난다.

旺方插峯如星文武兼全

왕방에 마치 꽃아 놓은 듯한 봉우리가 별같이 보이기 때문에 문무관이 함께 난다.

來龍入首插天萬乘天子幾生

들어오는 지맥 두둑이 무덤 바로 뒤에서 하늘을 찌를 듯 하니 만승천자가 수다히 난다.

九曲明堂鎖眞氣富貴榮華綿連連

열기설기 산과 물줄기로 엮어 짜인 명당의 앞쪽이 꼭 잡아 잠기니 부귀영화가 오래오래 계속된다.

捍門華表守關門文武英雄幾出

두 개의 문(捍門)과 그 가운데 초소막(華表)이 있어 관문을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무영웅이 수다히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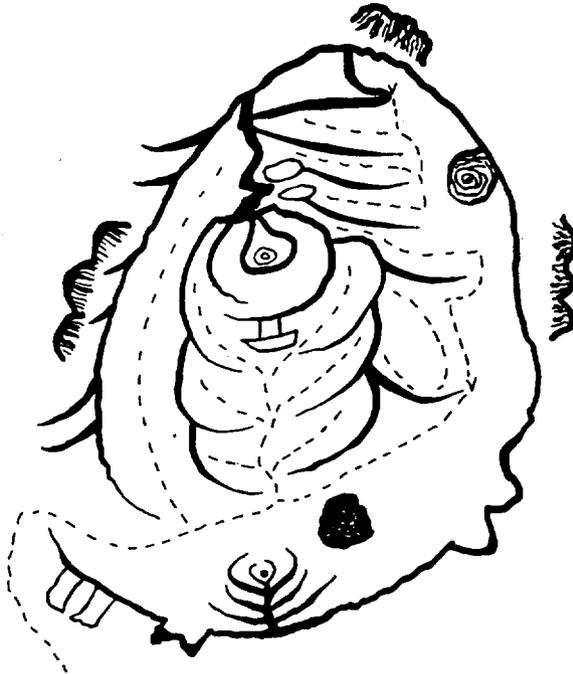
明堂前數玉印累代孫而官印

명당 앞에 많은 옥인이 있어 누대 자손이 관인(벼슬)을 한다.

天不兮語地不語 積德家中先新宜

하늘도 말하지 않을 것이고 땅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덕을 쌓은 집만이 먼저 얻을 것이다.

<그림 14> 돌트멍(장구목) 명혈지 풍수도



※자료 : 김선우 지관 작도

<그림 15> 영실 명혈지 풍수도



※ 자료 : 김선우 지관 작도.

다음에 제주 제5의 명혈지인 반데기왓 명혈지(東盤得田)는

來龍頭而笏管星而卓立

내려오는 지맥으로서의 흘관성이 우뚝서니

連代連代富貴忠孝連出

대대로 부귀하고 충효함이 계속 나올 것이다.

臨官方而屹馬形 報國公信德貴人

임관방에 말들이 우뚝서있으니 보국하는 신망과 덕있는 귀한 사람이 난다.

來龍頭而土星體 文章才士豈何羨

내려오는 지맥 머리가 토성체라서 문장재사를 어찌부러워하리.

來龍屈曲水則靜 代代兒孫會讀書

내려오는 지맥의 굴곡하고 물이 조용한 즉 대대로 아이 자손들이 모여 책을 읽네.

丙正到局身掛朱衣

병임에 이르는 국면이라 몸에 관복을 입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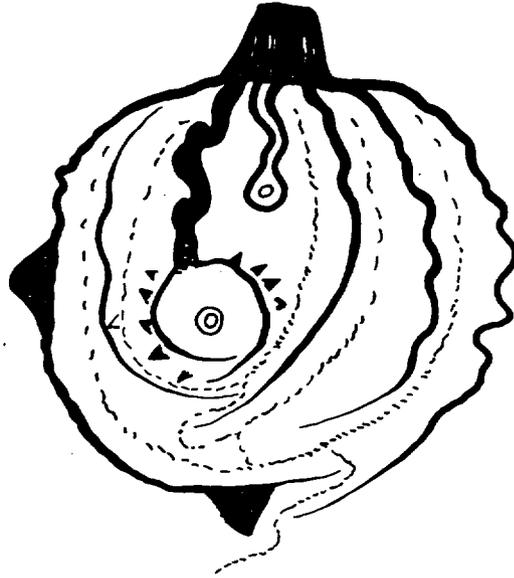
龍虎回抱明堂寬平 水口有捍門 瀛洲以南第一地

용호가 감싸돌고 명당이 평편하고 물이 나가는 길목에 문이 있으니 영주
이남 제1지라

無積德者何以取得乎

덕을 쌓지 않은 사람이 어찌 얻을 수 있는 땅이라.

<그림 16> 반데기왓 명혈지 풍수도



*자료 : 김선우 지관 작도

제주 제6의 명혈지인 반내왓 명혈지는 <半花形> 명혈지라 한다.

甲卯龍甲庚之字亥字歸遠水金冠玉冠孫至千

갑묘로 온 지맥이 갑경을 지(之)자 해(亥)자를 이루고 멀리서 물이 돌아오
니 각종 고관대작이 수천이 된다.

東驛千西積萬擎山端坐卯方窺形如仙人讀書體

반데기왓(東盤得田)에 말 천마리, 반내왓(西半花)에 소 만마리라 하며, 한
라산이 묘방 끝에 규봉처럼 자리하여 선인이 독서하는 모습을 보인다.

甲方冑峯双窺長孫科甲連出辛方筆峯双窺成才進士連出

갑방의 투구처럼 생긴 산봉이 쌍규를 이루어 장손이 계속하여 벼슬을 한다.
龍上越窺双窺水石宗富貴不絕

쌍규와 물이 용너머에 있어 석종(전설적인 한국의 옛부자)과 같은 부귀가 끊이지 않는다.

井水岳稱司命旗南風戲弄三陽交遮震星呈祥臥牛在丑

정수악은 군대의 사명기라 부르는데 남풍에 펄럭이고巽·丙·丁의 삼방향(三陽) 쪽이 시원하게 트여 어우러져 있다. 동쪽의 산봉(星)이 상서롭고 축방 쪽에는 수 많이 누워 있는 소가 있다.

插峯在辛三千弟子講席

꽃은 듯한 산봉우리가 신방(辛方)에 있으니 삼천제자를 가르치는 격이다.

<그림 17> 반내왓 명철지 풍수도



*자료 : 申相俊 編刊(1997), 『愚堂 申癸生 堪輿遺錄』, 韓國福祉行政研究所, P. 171.

이상 6대 명혈지의 논산 내용에 대한 일반성은 한반도부나 중국대륙의 풍수와 마찬가지로 원리 그대로 승조기복(崇祖祈福)의 신앙적[宗教的]인 것과 추미피오(追美避惡)의 심미적[美學的]인 것의 혼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연하면, 풍수에서의 지리적 경관을 이용하는 동기가 ① 마법·주술적인 동기 ② 신앙이나 숭배 등에 의한 종교적 동기 ③ 의미의 표시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전달적 동기 ④ 애호나 상미(賞美)의 입장에서의 심미적 동기에 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숭배와 후손의 발복에 대한 기대가 체(體)라면 경관에 대한 심미는 용(用)이 되는 것으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명혈지 공간은 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구획된 성현(聖顯) 공간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으로는, 즉 경관에 대한 상징적 언어가 없이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성스러움을 자연경관의 미(美)로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적 미덕과 심미적 호경(好景) 사이에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 조상에 대한 숭배 내지 자신에 대한 기복을 묘당에서 받아들이고 이러한 묘당이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은 심미적인 우수성을 관조함과 연관되어지고 있다.

6대 명혈지의 논산에 있어 우선 신앙적 미덕의 내용으로는 조상의 묘를 잘 쓰면 후손 중에 문무백관, 성인군자, 절세부자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는 후광경관을 이루는 내용 지맥의 장단곡절(長短曲折), 전당경관을 이루는 자체 혈산(穴星)과 이를 포함하여 사방을 위요하는 오행산(五星) 형세의 정사균형(正邪均衡) 그리고 외당경관으로서의 안대산수(案對山水)의 위치와 형세의 적부미오(適否美惡)를 내세운다. 여기의 장단곡절, 정사균형, 적부미오에 대한 심미적 판단은 물론 행위자의 주관에 의하고 있다. 이들은 명혈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오브제(objects)들로서 환언하면 용(來龍, 후맥)·혈(眞穴, 葬者)·사(砂, 龍虎山·朱雀山)·수(水, 龍虎水, 朱雀水)로 줄여 말할 수 있다.

이들 오브제는 현실성의 환유로서 역설적이지만 성의 공간을 현실의 속적 세계를 지시하여 사실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이들 오브제들은 은유의 가치를 갖게 되고 그 은유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코드화(略號化)되면서 상징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오브제가 행위자(地官)의 설명에 따라 상이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데서 오브제 기호의 다의성을 엿볼 수

있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브제는 성스러운 공간의 현실적 활용성을 더욱 높게하는 기호가 되고 있다. 반드시 공간과 장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종교는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신비 곧 언어형상을 통해서 말한다. 여기서 언어란 환유나 은유와 같은 상징을 의미한다. 물론 이 때의 상징들은 거짓말일 수 있지만 그것은 꿈을 갖게 하고 또한 그 꿈을 이루게 하는 특별한 거짓말인 것이다.

자연경관의 은유적 표현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연경관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은유의 중요한 기능은 이해이다. 반면에 환유는 1차적으로 지시의 기능을 갖는다. 즉, 환유는 한 개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개체를 대신한다. 물론 환유도 이해를 돕는 기능을 더러 갖는다.

풍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상징은 확장된 은유의 체계로서 결국 환유에서 은유를 거쳐 상징으로 이어지는 스펙트럼의 한 끝은 차지하고 있다. 풍수에서의 현무, 주작, 청룡, 백호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단순한 자연적 기호는 아니고 의도적인 기호로서 4방의 신을 의미하는 의물화된 환유이다. 이들은 또한 지형경관의 장단곡절, 정사균형, 적부미오에 따라 환유를 넘어서 은유가 되어 조손(祖孫), 부부(夫婦), 자녀(子女), 주신(主臣) 등으로 의인화되어 나타나며, 더욱 확장되어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신의 상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지형경관 자체가 단순한 주물(呪物)로서 보기보다는 환유와 은유와 상징의 교호 속에서 주술과 종교가 하나로 뒤엉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징이란 질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두 개의 사물과 개념이 어떤 유추작용에 의하여 전자가 후자를 표상하는 관계에 있을 때 그 전자를 말한다. 유추작용에는 어떤 비약이 있다. 유추작용은 쉽게 말하면 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사항 사이에 간극을 메워주는 것으로 거기서 관념의 비약이 개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비약이 이루어지는 계기는 비합리적 직관이거나 은유이거나 그 밖의 주관적인 감정적 요소라 하겠다. 상징이 일반적으로 예술이나 종교 및 창조성과 관련이 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인간은 상징을 창조하고 그 상징을 통하여 환경의 생생한 리얼리티를 묘사하는 동물이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상징은 숨어 있지 않다. 그것을 읽는 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하나의 신화, 또는 하나의 상징을 역사적이고 관념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정신분석학의 방법대로 우리

의 감정이나 욕구불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회적인 모델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의 풍수적 상징을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리적 경관에서 파생된 상징의 자유로움을, 즉 사회적인 질서에 의해 제약당하기 전의 어린이의 자유를 되살려내야 된다. 그것은 물질의 제약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에 의해 주어진 욕구불만 때문에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속에 틀어박혀 열쇠를 잃어버린 절망적인 인간이 태초의 '황금시대'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제주의 풍수지리 사상 역시 한반도나 중국대륙을 통하여 들어 온 부분이 상당히 있다. 다만 한반도부가 중국에서 풍수지리사상을 받아들였지만, 자생적인 요소가 있듯이 제주 역시 외지에서 풍수사상을 받아들였으나 지역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전파론적 입장에서 곤륜산에 이어진 백두산을 조종산이라고 주장하는 수정주의자(revisionist)와 은하수의 정기를 받은 백록담이 있는 백록봉이 태조산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주의자(regionalist)의 대립에서 잘 나타나 있다. 물론 자연지리적으로는 백두산과 한라산은 구조상 맥을 전혀 달리한다. 수정주의에 의해서라면 '지맥이 발달하지 않은' 제주 섬에는 <호종단 설화>에 나온 호종단에게 탕을 돌리고 있지만 명당자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지역주의에 의하면 '제주에는 명당자리가 담배씨 서말에치나 있다'고 한 <소목사 설화>에서 보듯이 제주적인 명당자리가 무수히 많다는 것이 된다.

제주에서는 우선 묘당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용(山)을 중시하는 영남의 풍수적 요소와 수(水)를 중시하는 호남의 풍수적 요소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아울러 형국론도 중시하여 어느 특정 주의·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제주의 풍수는 산과 물과 적절히 혼합된 자연경관에 적용성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내용맥이 발달하지 않고 또한 현무가 되는 주산이 가까워서 뚜렷하지 않아도, 그리고 물이나 조안(朝案)이 없어도

혈관이 되도록 기반경관만 잘 갖추고 있으면 명혈지로 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제주의 명혈지는 한반도부의 십승지나 명혈지에서 보이는 모식적이거나 소극적인 배고전애(背固前隘, 掛形, cul-de-sac형)의 폐쇄된 경관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에도 진산(鎭山)의 개념이 없지만, 묘에 있어서도 입수(入首)는 빈번히 말해지나 별따로 주산 내지 현무를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즉, 입수와 현무, 주산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명혈지의 기반경관은 대명혈지를 기준할 때 한반도부라면 분명히 보다 점적(点的)으로 나타나 혈처가 하나가 되나 제주에서는 면적(面的)으로 나타나서 혈처가 하나가 아니라 여기저기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제주에는 '천리행룡(千里行龍)에 일석지지(一席之地)' 즉, 천리나 되는 산맥에 단 하나의 명혈지만 있다(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적용될 수 없다. 6대 명혈지 영역내에 다수의 묘들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 6대 명혈지의 입지경관을 보면 제주 제1 명혈지인 사라악 명혈지와 제5 명혈지인 반대기왓 명혈지만이 전형적인 명당의 원초적 요건이 위요경관을 이루고 있으나 나머지는 전개형경관을 이루어 조망성을 중시하여 입지하고 있다. 6대 명혈지 중 특히 고산명혈지의 묘들은 모두 생장(生葬)이 아니고 뒤에 명혈지를 찾아 하나 둘 이장(移葬)하여 자리한 묘들이다. 물론 이들 묘 중에는 무연분묘가 되어버리거나 다시 이장하여 버린 묘들도 있지만, 명혈지에 묻힌 장자(葬者)의 후손들이 지관들의 예언대로 부귀영화를 누렸거나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풍수지리의 본질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주에 있어서 풍수의 지리적 기반에는 지역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리적 경관과 풍수 신앙과의 연결 매체가 되는 환유, 은유, 상징 등의 메타언어들은 중국 대륙이나 한반도부의 그것들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풍수의 논리적 기반은 제주적인데 반하여 정서적 기반은 외지에서 유입된 외래적인 것에 두어지고 있다.

풍수지리에 있어서 상징을 둘러싼 분위기는 논리적이거나보다는 심미적이며 과학적이거나보다는 상상적인 측면에 보다 경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수 상징 자체의 논리나 문법(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뜻대로 바꾸거나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법칙)이 부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상징은 명백히 개인이 아닌 집단 즉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풍수 상징 해석에서는 경험적인 연구조사라는 직접적인 방법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면 상징의 정의나 해석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의 정립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구성하는 일은 매우 긴요하지 않을 수 없다. 풍수 상징에서 요청되는 것은 경험적인 검증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인간주의적인 혹은 인간학적인 검증이다.

부연하면 풍수지리를 더욱 이해하기 위한 전제는, 인간의 지향성은 지역에서의 자연경관의 상징 형태와 상호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시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미학 내지는 심미지리학의 등장이 기대되고 있다.

< 참고 문헌 >

- 1) 김두규(1998), 『우리땅, 우리풍수』, 동학사.
- 2) 尹致富(1989) “濟州說話에 나타난 風水思想”, 『德齋申瑑俊博士 華甲紀念 論叢』 德齋申瑑俊博士 還曆紀念會.
- 3) 秦聖麒(1980) “濟州島民과 風水地理 - 새로 發見된 『瀛洲影圖草』를 중심으로” 『韓國文化人類學會』, 韓國文化人類學會.
- 4) 申相俊 編刊(1997) 『愚堂 申癸生 堪輿遺錄』, 韓國福祉行政研究所.
- 5) 李夢日(1991) 『韓國風水思想史』, 明寶文化社.
- 6) 李鐘恒(1962) “風水地理說의 盛行의 原因관 그것이 우리 民族性에 끼친 惡影響에 關한 一考” 慶北大學校 論文集 第五輯.
- 7) 柳正基(1975) 『東洋思想事典』, 弘道全書論著類 第一輯 大韓公報社.
- 8) 裴宗鎬(1969) “風水地理略設” 『人文科學』 第二十二輯, 1969, 12月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 9) P.M. 젤트너 저 (1975)/ 정순복 역 (1996) 『존 듀이 미학입문』, 예전사.

- 10) 게라투스 반 데르 레우후 지음 / 尹以欽 譯(1998), 『종교와 예술』, 열화당.
- 11) 金鐘喆(1995) 『오름나그네 1』 도서출판 높은오름
- 12) 도선국사 원저(昭平 2년)/정관도 해설(1994) 『道說國師風水問答』, 知說堂.
- 13) 具美來(1996)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